

기억해부, 공존을 위한

# 동네고양이 안내문

## ☑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

- ◎ 정기적으로 사료와 물을 주면 길고양이가 먹이를 찾아 음식물 쓰레기 봉투 뜯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깨끗한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됩니다.
- ◎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(TNR, Trap-Neuter-Return)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안정적인 먹이 급여를 병행해야 합니다.
- ◎ 길고양이는 쥐의 천적으로서 고양이 배설물 냄새만으로도 쥐의 유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## ☑ 길고양이를 학대하면 처벌 받습니다

- ◎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.
- ◎ 길고양이 역시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으로서 길고양이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등 학대를 하면 처벌 받습니다.

## ☑ 길고양이는 TNR, 구조 등 인도적인 목적의 포획만 허용합니다

- ◎ 길에서 스스로 자생하는 길고양이는 유기동물 보호소 입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동물보호법 상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 후 제자리 방사하는 대상으로 TNR, 구조 등 인도적 목적의 포획만 가능합니다.
- ◎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므로 한 지역의 길고양이를 잡아서 없애면 다른 길고양이들이 다시 유입되기 때문에 포획 후 살처분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것은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없습니다.
- ◎ 중성화 수술 후 다시 제자리에 방사하는 TNR이 가장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 방식입니다.

## ☑ 생명과 공존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

- ◎ 길고양이 또한 도심 생태계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우리와 공존해야 할 소중한 생명입니다.
- ◎ 해당 지역은 길고양이와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돌봄 자원활동가, 동물보호단체, 지자체가 TNR을 비롯한 보호·관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역 동물보호활동가, 동물보호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주민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